

KNTA News

WHO 서태평양지역회의의 보건의로 홍보관 참가



지난 9월 10일부터 14까지 5일간 제주 컨벤션센터에서는 제58차 WHO 서태평양지역회의가 열렸다. 보건복지부가 주최하고 WHO 서태평양지역사무처가 주관하는 이번 회의에는 한국, 일본, 중국, 뉴질랜드를 비롯한 서태평양 지역 정회원국 27개국과 그밖의 4개국의 대표단과 WHO 협력기관, 비정부기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신종인플루엔자, 비전염성 질환의 예방과 관리, 새천년개발목표 달성 상황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한편 대한결핵협회 결핵연구원은 이번 회의 홍보관에 참가, 대한결핵협회가 수행하고 있는 국가결핵관리사업 및 크리스마스 쉼 사업, 결핵감시체계와 결핵관리 국제교육 사업 등을 홍보하였다.

중국 방노협회 결핵관계자 방한



지난 9월 17일부터 21일까지 중국 방노협회의 결핵관계자 3명이 한국을 방문, 우리협회와 한국의 보건시설을 견학하고 돌아갔다. 참가자는 산동성 흥부병원장인 리쥘차오, 베이징 결핵관리연구원 부원장인 원칭, 저장성 결핵센터 책임외과의 하이보.

방문 첫날인 17일에는 본부를 방문해 협회 현황 등의 설명을 들은 뒤 휴식을 취하고, 이튿날인 18일부터는 서울 시청 및 서울중구보건소, 우리협회 서울시지부, 시립서북병원 등을 방문하고 결핵연구원을 방문하여 교육을 받았으며, 그밖에 서울 시티투어 등의 일정을 소화하며 짧은 일정이었지만 한국의 보건시설 및 문화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강원지부, 강원대생 결핵검진

강원대학교(총장 최현섭)는 지난 9월 10일부터 10월 9일까지 한달간 '강원대생 건강챙기기 프로젝트' 라는 이색사업을 벌였다. 대학이 직접 나서서 학생들의 건강을 돌본다는 점에서 큰 호응을 얻었던 이번 프로젝트에서 우리 협회 강원지부는 강원대학교 전교생을 대상으로 결핵검진을 실시했다. 추후 결핵환자로 판명된 학생들은 춘천시보건소, 대한결핵협회강원도지부 복심자의원 및 강원대학교 병원과 연계해 체계적인 진료를 받도록 할 방침이다.

9월의 결핵 홍보 캠페인



인천지부



경기지부

- 인천지부는 9월 7일 인천 주안역사에서 결핵 홍보를 위한 거리 캠페인을 가졌다.
- 경기지부는 수원역사 및 애경백화점 지하 입구 등에서 홍보 캠페인을 실시하였다.



부산지부

- "결핵, 우리 주변 어디에나"라는 문구의 현수막을 들고 거리 캠페인에 나선 부산지부